

현대패션에 나타난 五色의 동·서양 색채에 관한 연구

김 미 경* · 임 영 자**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Eastern and Western Colors Focusing the Five Colors in Modern Fashion

Mi-Kyung Kim* · Young-Ja Lim**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2003. 9. 4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to consider both the eastern and western concepts of colors focusing on the five colors(Blue, Red, Yellow, White, Black) derived from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which are the traditional philosophy of the East and to analyze the modern fashion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is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e eastern color concept has been formed by the influence of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which explain the generation and extinction of the universe. When it comes to the five colors, the symbolism of the east and west has much in common relatively. Concerning the rule of the five colors match, both the rules of the east and west are highly similar with each other. As mentioned above, the study shows that the five colors concepts and match rules between the east and west have much in commo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o connect the compatibility and incompatibility of the eastern five colors with scientific western theory of color harmony.

Key words: Yin and Yang(음양), the five elements(오행), the five colors(오정색), symbolism(상징성), color harmony(색조화)

I. 서론

21세기를 맞아 서양에서는 효율성과 합리성에 따라 사물과 현상을 해석했던 서구 문화에 한계를 느껴 변화의 돌파구로서 동양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20세기 중반에 노스럽(Northrop)¹⁾과 피어슨(Pearson)²⁾에 의해 예견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동·서양의 문화를 교류·결합하는 추세는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동양사상을 접목시키고 있으며 향후 더욱 보편화될 전망이다.

동양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추구하는 요가(Yoga)나 아유베다(Ayurveda)³⁾, 선(禪) 등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복잡하고 오래된 이론으로만 여겨졌던 풍수(風水)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지침으로 서양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더욱이 동양의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에서 비롯된 오색(五色)을 요리, 패션, 인테리어, 뷰티 등 라이프스타일에 적용시켜 건강을 돕고 에너지를 주며, 삶에 있어 조화와 길한 기운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음양오행사상이 우주와 자연 법칙의 기본이며 한민족의 생활과 건강, 풍습과 문화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듯이 음양오행에 대한 관심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패션 테마⁴⁾로 제시되어 자연의 순환을 표현하는 모티브로 사용되기도 하고 오행의 성질을 이용한 상품개발⁵⁾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음양오행사상은 살아 있는 생물체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한다. 즉, 자연은 음(陰)과 양(陽)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만물의 생성소멸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오행은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원리에 따라 넘치면 극(剋)하고 모자라면 생(生)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한국의 전통복식을 보면 오색의 상생·상극 원리를 잘 활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의 무병장수를 위하여 오색이 다 들어간 색동옷을 입히고, 혼례

시 청홍사(靑紅絲)를 사용하며, 관복에 있어 버선은 흰색으로 신발은 흑색으로 하여 상생 원리를 활용한 예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색채관이 서양의 색채 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그 자취를 찾아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서양에서 풍수 등을 통해 오색에 주목하고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색에 내포된 사상과 진정한 미적 가치를 찾아 동·서양의 색채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색채관을 창출하고 현대 패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색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색채개념이 형성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동·서양의 오색 배색 비교와 동·서양의 색채개념이 절충된 오행색상론의 현대적 실용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동·서양에 따른 오색의 상징적 의미와 동양의 배색원리인 상생과 상극, 서양의 배색원리인 유사와 대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서양의 색채개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서양 색채의 상징적 의미와 배색원리에 근거하여 2000년대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색을 살펴보고 비교한 후 그 차이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와 시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는 색채관련 문헌과 한국복식 관련 문헌, 패션월간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각자료는 2000년대 초반의 것으로 해외컬렉션에서 추출하였으며, MODEetMODE, Fashion News, GAP Collections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색원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2색 배색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양의 상생·상극 원리와 서양 배색의 가장 기본적인 배색인 유사, 대비 배색을 비교하였다. 또한 현대패션에서 추출한 색 자료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먼셀(Munsell)표색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오색이란 용어는 음양오행사상의 오정색(五正色), 즉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을 가리킴을 밝혀둔다.

II. 오색의 동·서양 색채개념

이 장에서는 동·서양 오색의 상징적 의미와 배색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서양의 색채개념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동·서양에 나타난 오색의 상징적 의미

동양의 음양오행사상은 우주만물의 현상과 생성소멸을 설명한 것이다. 동양의 색채개념은 이러한 음양오행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오행인 목·화·토·금·수에 해당하는 색은 청·적·황·백·흑으로, 이와 같은 오색은 색채 자체의 미보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상징적인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길흉을 막고 화복을 비는 벽사지색으로 사용한 청색, 적색과 오행의 중심 색으로 황제의 권위, 땅의 비옥함을 상징한 황색, 순결과 청렴을 의미하여 한국인에게 가장 선호된 백색, 선비의 기품과 지조를 상징한 흑색은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서양의 색채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소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관적인 연상과 객관적인 연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오색에 관한 색 이미지를 정리해 보면, 무채색인 백색과 흑색의 상징적 의미는 순결과 죽음이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인다. 청색과 적색, 황색과 같은 유채색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청색은 젊음과 신뢰를 상징하지만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적색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인 이미지의

상징성이 특징이며, 황색은 색의 혼합에 따라 색이 미지가 크게 변하는 특성 때문에 이중적인 이미지⁶⁾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에서 연상되는 부와 풍요와 같은 의미도 있지만 배신,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색인 것이다.

동·서양의 오색에 나타난 색채의 상징적 의미를 요약·비교하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2. 오색의 동·서양 배색원리

동양의 오색은 각각 독자적인 상징성을 가지며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따라 사용되었다. 오색의 기본 개념인 오행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상생하고 상극한다. 오행은 각기 다음에 있는 것을 상생하고, 하나 건너 뚫 것과는 상극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상의 상생·상극개념을 오색에 대입시켜 보면, 청색은 적색을 도우며, 적색은 황색을 도우며, 황색은 백색을 도우며, 백색은 흑색을 돕는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청색에 적색을 더하면 상생하는 기운이 높아져 길한 배색이 되는 것이다. 상극배색은 ‘극한다’는 개념 때문에 기피했던 배색이지만 색조화에 있어서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생·상극배색의 원리는 서양의 색채조화론에 의한 유사·대비원리와 비슷한 개념을 나타낸다.

동양의 색채개념이 사상적 접근에 의한 것인 반면 서양의 색채개념은 과학적 접근에 의해 형성되었다. 다양한 학문적 연구에 의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표 1> 동·서양에 나타난 오색의 상징적 의미 비교

오색	상징적의미	동양	서양
청색		희망, 생명, 청춘, 발전, 창조, 벽사 양기왕성, 청렴결백	조화, 우정, 냉정, 정절, 진정, 외로움 시원함, 청결, 知的, 동경, 우울
적색		불, 원기, 명성, 행복, 양기, 생명 벽사, 따뜻함	불, 피, 걱정, 분노, 注意, 위험, 혁명 애정
황색		중심, 황제, 관용, 인내, 지혜, 권위 부귀, 덧없음, 늙음, 믿음, 신성, 풍요	富, 부드러움, 쾌활, 밝음, 명랑, 행복 陽氣, 注意, 知性
백색		순결, 청렴, 청빈, 신성, 공허, 길조, 죽음	순결, 순수, 無垢, 평등, 영원, 기품 경쾌, 진실, 공허
흑색		어두움, 종교, 지조, 경화, 죽음 음흉함	죽음, 절망, 상실, 불안, 惡, 嚴格, 冷酷 불길, 중후

인 체계를 갖춘 표색계(表色系)⁷⁾와 색채조화론을 활용하며 축적된 상징과 이미지를 적용시켜 미학적인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배색조화의 기본에는 색과 색 사이의 유사성에 기인하는 유사배색과 차이성에 기인하는 대비배색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표준색표의 먼셀 20색상환(표 3)에 있어서 중심색을 기준하여 청색은 5B, 적색은 5R, 황색은 5Y로 선정하고, 색상차 2~3의 배색을 유사배색으로, 색상차 8~10의 배색을 대비배색의 범위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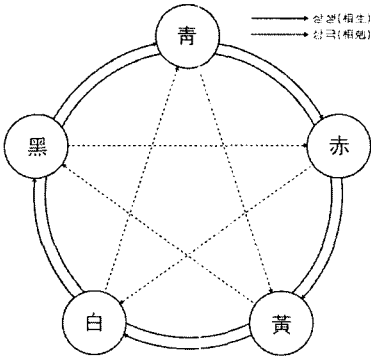
색은 색상배색을 중심으로 하였다.

1. 청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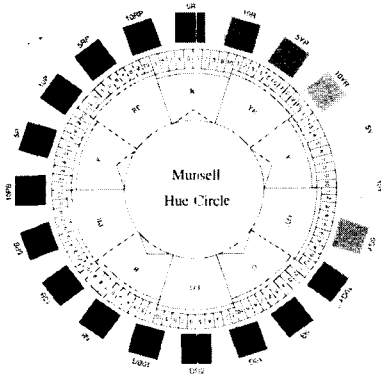
청색은 오행에 있어 봄에 해당하므로 봄이란 계절에 적합한 희망, 생명을 표현하며 온난하고 만물이 무성하는 양기가 왕성한 색⁹⁾으로 간주된다. 청색을 도와주는 상생색은 적색이다. <그림 1>과 같이 차가움과 따뜻함을 표현하는 대표적 색상인 청·적으로 이루어진 배색은 한난대비의 효과와 더불어 따뜻한 색은 상의에, 차가운 색은 하의로 구성하여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며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과 행복을 상징하는 적색이 적절하게 조화되고, 두 색 모두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기운을 몰리칠 수 있는 길한 배색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전통 복식에 있어 왕비의 적의(翟衣)에 청·적 사용된 것도 그러한 의미로 파악된다. 또한 조선시대의 혼례시 신부는 다홍색에 남색 안을 받쳐 이성지합(二性之合)의 의미가 있는 활옷을 입었다.¹⁰⁾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며 결혼생활의 화합과 행복, 안정을 빌며 원기왕성과 길함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양에서 청색은 젊음, 냉정, 외로움, 청결, 정절 등을 상징한다. 청색과 대비되는 색 중에서 빨강을 배색하여 색상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감정과 이성에게 가장 강력한 대립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반대색인 청-적은 그 모순된 효과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 배색¹¹⁾이다.

봄에 해당하는 청색이 늦여름에 해당하는 황색과 만나면 상극배색이 된다. 권력을 상징하고 고귀한 색으로 인식된 황색과의 조화는 청색이 갖는 상징성과 더불어 땅위에 만물이 생성하는 풍요를 의미한다. 청-황 배색은 상극 배색이나 무속에서는 길한 의미를 표현한다.¹²⁾ <그림 2>에서 보여지는 어두운 청색과 밝은 황색과의 조화는 한국 복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밝은 색 저고리에 짙은 색 치마를 구성한 <그림 2-1>처럼 안정감이 느껴지는 배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색으로 색상대비를 하여 각 색의 속성을 자극하는 효과가 큰 배색으로 강하고 명료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표 2> 오색의 상생·상극도



<표 3> 먼셀의 20색상환⁸⁾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서양 오색의 분석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색을 배색중심으로 동·서양별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비교·고찰하였다. 배



<그림 1> 청색상생배색
Keita Maruyama 2001 F/W

<그림 2> 청생상극배색
Markus Lupper 2001 F/W

다.13) <그림 3>을 보면, 관용과 인내를 나타내는 고 채도의 황색과 역시 채도가 높은 적색을 배색하여 따뜻한 원기를 강조하며, 생명과 부귀를 상징하고, 동적이며 정열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적색의 상생배색은 존귀함을 의미하는 황색을 사용하므로 일반서민의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왕후나 비빈의 복색(그림 3-1)은 홍색계통이어서 왕복인 황색과 조화를 이루어 상생원리에 맞추었으며 황제의 시무복인 곤룡포는 황색단(緞)이나 사(紗)에 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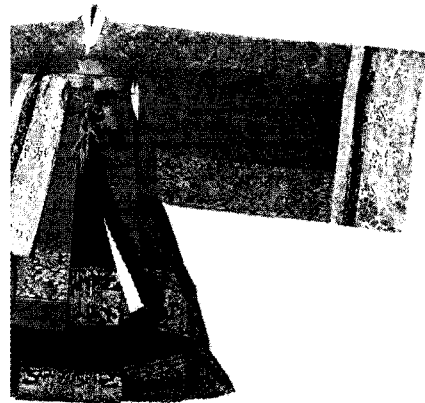
<그림 2-1> 송화색 삼회장 저고리와 치마
(김영숙, 조선조말기왕실복식, 1987, p. 84)



<그림 3> 적색상생배색
Antoni&Alison 2002 F/W

2. 적색

적색은 따뜻하고 만물이 무성하는 양의 색이다. 적색의 상생색은 황색으로서 흙을 비옥하게 하는 힘이 불(火)인 적색에 있다고 본다. 적-황 배색은 두 색 모두 양기의 색이므로 길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민속에서는 벽사의 의미로 신성하게 사용되었



<그림 3-1> 흥원삼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색 안을 넣었다. 이것은 걸감의 황색과 안감의 적색이 상생하니 무궁한 발전을 의미한다.¹⁴⁾ 서양에서 적색은 열정과 생명, 환희, 분노, 공격성, 흥분, 위험, 유혹, 역동적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림 3>을 서양의 배색개념으로 살펴보면, 채도가 높은 황색과 적색을 배색하여 난색계의 동적이며 정열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자극적이며 강렬한 느낌을 주는 배색이라 할 수 있다.

적색의 상극색인 백색은 불과 금이 만나 서로 물리치는 힘이 강하나 한국 복식에 있어 버선의 흰색이나 동정의 흰색 등에 사용하여 명도가 높은 원색과 배색하여 융화되는 밝음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이 배색은 백색의 신성함과 적색의 벽사를 상징한다. <그림 4>에서 보여지는 백색 블라우스와 적색 팬츠와의 배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백색과 생명을 상징하는 적색을 배색함으로써 불길한 기운을 축소시키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무채색과 유채색과의 대비로 간결하고 세련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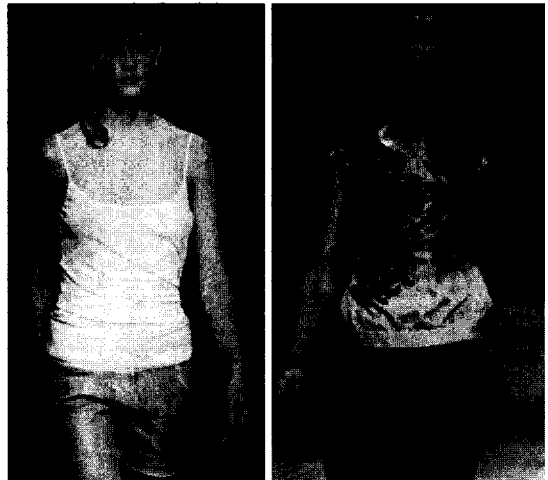
<그림 4> 적색상극배색
Bally 2001 S/S

3. 황색

황색은 오색의 중심 색으로 권력 외에 고귀와 풍요, 관용과 인내, 지혜를 상징하는 색이다. 황색의

상생색은 백색이다. 황색에 가을을 상징하는 백색을 배색하면 풍요로운 결실을 상징한다.¹⁵⁾ 서양에서 황색은 태양과 광명, 희망을 의미한다. <그림 5>는 색의 속성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고명도·고채도의 황색에 무채색인 백색을 배색한 상생배색이다. 고명도의 백색과 황색 배색은 명도 유사배색의 조화를 보여주며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상생배색이지만 황색이 황제의 색이라 금제되었으므로 한국 복식에서 찾아보기 힘든 배색에 속한다.

황색의 상극배색 역시 상생배색과 마찬가지로 거의 보기 힘든 배색이다. 그 이유는 임금만이 사용했던 황색과 민속적으로 흉조와 죽음을 상징하는 흑색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상극개념의 배색을 기피하는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에 나타난 황-흑 배색은 흑색이 고채도·고명도의 황색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황색의 상극배색인 <그림 6>은 황색의 상징인 지혜와, 흑색의 상징인 지조를 나타낸다. 황-흑 배색은 무채색·유채색 대비로 명도대비 효과의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5> 황색상생배색 <그림 6> 황색상극배색
Olivier Theyskens 2001 S/S Alexandre Matthieu 2001 S/S

4. 백색

고대부터 한민족은 마음가짐이나 생활에 있어서

불결하고 사악한 것을 절대 배격하고 결백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복식에는 흑과 백의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조선 복식에서 흑과 백의 조화는 주로 남성 복식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흑림(黑笠) 차림의 유학자의 심의(深衣)와 유건(儒巾) 차림에 있어서 심의의 백색과 유건의 흑색 배색(그림 7-1)은 엄숙하고, 단정하고, 고고한 선비의 이미지가 느껴진다.¹⁶⁾ <그림 7>에 나타난 배색은 상생과 음양조화가 두드러지며 순수하고, 소박하며, 결백한 의미의 엄정하고 침묵적인 흑색과 배색하여 더욱 빛나는 백색의 고결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색채 감정의 표현¹⁷⁾이라고 볼 수 있다. 극명한 명도대비로서 상생의 조화를 보여준다. 서양에서 백색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빛의 색, 신의 색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백색은 평등, 평화, 순결, 청결 등을 상징한다. <그림 7>에 표현된 백-흑 대비는 명암대비의 대표적인 배색이다. 백-흑 대비는 대립적이면서도 서로를 인식시켜주는 배색이며 삶과 죽음을 상징한다.¹⁸⁾



<그림 7> 백색상생배색
Gucci 2001 S/S



<그림 7-1> 이재 초상화
(한국명인초상화대감)

백-청 배색은 상극배색이지만 백색을 명색(明色)으로, 청색은 암색(暗色)으로 보아 밝음과 어두움, 즉 음양의 조화로 사용되었다. 한국 복식에서 많이 사용된 색은 백색으로 상하를 갈게 하거나 청색계열

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으므로¹⁹⁾ 상극이지만 애용된 배색에 속했다. 정적인 기품과 더불어 명상암하(明上暗下)의 안정감이 느껴지는 배색이다. <그림 8> 상극색인 청색과 배색하여 깨끗하고 담백한 미적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8> 백색상극배색
Homeo Live 2002 S/S

5. 흑색

흑색은 오행에 있어 방위로는 북쪽을 가리키고 계절로는 겨울을 의미하며 어두움을 상징하여 음에 속한다. 죽음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길한 색으로 여겨 제사나 결혼에 사용되기도 한 색이다.²⁰⁾ 상생색인 흑-청 배색은 황색의 경우처럼 여성의 전통 복식에서 찾아보기 힘든 배색이지만 남성의 관복에는 사용²¹⁾되었다. 색의 감정효과에 따라 난색은 여성을, 한색은 남성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이치에 따라 과묵하고 무게있는 흑색과 남성적인 청색의 배색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9>는 죽음과 흉조를 상징하는 흑색에 생명과 양기의 색인 청색을 배색하여 균형있는 조화를 보여 주고 있다. 모든 빛을 흡수하는 흑색은 신비, 경숙, 엄숙성을 상징한다. 또한 절망이나 비탄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9>의 흑색 상생배색은 명도가 낮은 흑색과 비교적 고채도에 해당하는 청색을 배색하여 무채색·유

채색 대비의 효과를 보여주며 청색이 가진 속성을 강조하는 배색이라 할 수 있다.

흑-적의 상극배색은 적색이 지닌 벽사의 의미와 흑색이 상징하는 지조를 나타내는 배색이다. 전통복식에서는 왕세자의 상복으로 흑룡포(그림 10-1)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10>은 무채색·유채색 대비로 주목성이 높은 적색과 흑색을 배색함으로써 유채색의 속성을 강조한 배색이다. 흑-적 배색은 상극이지만 적색이 가진 상징적 의미는 청색과 유사한 것이 많아 겨울의 어두움을 상징하는 흑색에 태양과

빛의 상징인 적색을 배색하여 상극적인 관계보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 주는 배색으로 볼 수 있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색에 관해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색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는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지만 색마다 한, 두 가지 동일한 의미의 상징이 있었다. 이것은 오색이 가장 기본적인 색이며, 오랜 세월동안 자연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연상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4>의 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양 오색의 배색원리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동양의 오색개념을 서양의 색채조화론과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양의 배색원리인 상생·상극개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 서양의 유사·대비개념이다. 상생원리는 상호 구성색이 서로 도와 길한 기운을 생성하는 목적이 있고, 유사원리는 비슷한 속성의 색을 배색하여 공통성을 강조하는 원리이다. 상극원리는 서로 밀치려는 힘이 작용하는 관계이며 대비원리는 대조성을 강조한 원리이다. 이에 따르면 상생·유사원리는 순환적이며 수동적이지만 상극·대비원리는 역동적이며 능동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생·상극배색의 주조배색이 서양의 대비원리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동양의 색채개념이 역동적이고 능동적이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색채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오색이 지닌 상징적 의미와 배색에 대해 재인식하고 서양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색채이론과의 접목을 통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그림 9> 흑색상생배색 Alexandre Matthieu 2001 F/W
 <그림 10> 흑색상극배색 Emporio Armani 2001 F/W



<그림 10-1> 흑룡포
 (한국 전통생활의 미, 1992, p. 44)

<표 4>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서양 오색의 비교

오색	배색원리	배색색	배색특성	
			동양	서양
청색	상생	적색	음양조화, 벽사	색상대비, 한난대비
	상극	황색	합합, 풍요	보색대비, 수축·팽창 효과
적색	상생	황색	벽사, 신성	난색 이미지 강조
	상극	백색	벽사, 신성	무채색·유채색 대비
황색	상생	백색	풍요, 결실	무채색·유채색 대비, 명도유사
	상극	흑색	지혜, 지조	무채색·유채색 대비, 명도대비
백색	상생	흑색	상생, 음양조화	명도대비
	상극	청색	신성, 음양조화	무채색·유채색 대비, 명도대비
흑색	상생	청색	합합, 음양조화	무채색·유채색 대비
	상극	적색	벽사, 지조	무채색·유채색 대비

참고문헌

- 1) 1946년 F.S.C. Northrop은 그의 저서 『The Meeting of East and West』에서 인간이 자아와 우주를 적절하고 진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과 서양의 이야기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동양과 서양의 독특한 성취가 결합되는 새로운 사고체계의 등장을 예언했다.
- 2) Lester Pearson은 1955년에 출판된 『Democracy in World Politics』를 통해 인간은 다양한 문명들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공존하면서 서로를 배우고 서로의 역사, 이상, 예술, 문화를 공부하여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 3) 인도의 고대 건강요법으로 바타(공기), 피타(불), 카파(흙)라고 지칭되는 세가지 힘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다고 한다.
- 4) 면방 협회에서 2000/2001 F/W 패션 테마로 음양오행의 나무, 흙, 금속, 불과 물을 채택했다. 5개의 테마는 중국 철학의 음양오행에서 힌트를 얻어 자연의 완벽한 순환을 표현하고자 했다.
- 5) 오행의 성질을 체질로 분류하여 적용시킨 상품으로 오행생식, 오행학습법, 오행 아로마테라피 등이 있다.
- 6) 이현주 (1999). 노란색 이미지에 의한 복식디자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0.
- 7) 수많은 색을 정리, 분류하여 계통적으로 표시한 색체계를 말한다. 표색계는 크게 현색계(顯色系)와 혼색계(混色系)로 나눈다. 현색계는 물질상에 지각되는 색을 불체표준색으로서 색표 등으로 계통적으로 정한 표색계이며, 먼셀표색계와 오스트발트표색계가 유명하다. 혼색계는 빛의 혼색에 의한 것으로 CIE(국제조명위원회)표색계가 대표적이다. 新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用語辭典 (1990). 東京:パンタンデザイン研究所, p. 746.
- 8) 조필교·정혜민 (2003).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p. 25.
- 9) 강운숙 (1994). 복색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94-95.
- 10)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p. 120.
- 11) Eva Heller (2002). 색의 유혹 (이영희 옮김). 서울: 예담, p. 61.
- 12) 임원희 (2002). 한국 전통 복식의 배색 이미지.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4.
- 13) 임원희. 위의 책, p. 24.
- 14) 강운숙. 앞의 책, p. 86.
- 15) 임원희. 앞의 책, p. 24.
- 16) 금기숙 (1998).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p. 58-63.
- 17) 김영자. 앞의 책, p. 125.
- 18) 안향신 (1993).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 상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2.
- 19) 김영자. 앞의 책, p. 128.
- 20) 李延植 (1997). 臉譜藝術色彩文化論. 慶應義塾大學 박사학위논문, p. 75.
- 21) 조선시대 관복인 흑단령으로 걸은 흑색이고 안은 남색이다. 金敬仁 (1998). 韓國의傳統色と都市環境色彩に關する研究. 京都大學 박사학위논문, p. 19.